

TV

TV 11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넝쿨당’ 45.3% 최고 시청률로 훈훈하게 마무리

생생하게 살아있는 캐릭터들 미니시리즈 같은 재미

KBS 2TV 주말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하 ‘넝쿨당’)은 지난 9일 자체 최고 시청률인 45.3%(전국)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50부작으로 기획됐다가 인기에 힘입어 8회가 연장된 ‘넝쿨당’은 지난 2월25일 22.3%로 출발해 58회 평균 시청률 33.3%를 기록했다.

‘넝쿨당’의 여주인공 차윤희(김남주 분)는 원래 결혼에 생각이 없던 잘나가는 워킹우먼이었다. 그러다 고아 출신 미국 입양아의 사 방귀남(유준상)을 만나면서 시력이 지역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생각을 고쳐먹고 결혼에 골인한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차윤희가 사사건건 부딪히며 살던 앞집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 방귀남의 친엄마였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 싶던 앞집 처자들은 그의 시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윤희의 인생은 대지진을 맞는다.

고부갈등, 시누이와의 부딪힘 등은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던 차윤희는 하루아침에 ‘시월드’(시력을 지칭하는 은어)에 입성하고, 심지어 시박과 거의 한집에서 살게 되면서 시집살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최고의 남편과 알콩달콩 살아가던 차윤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시집살이 속에서 짜증나고 억울하며 고통스러운 상황과도 맞닥뜨린다.

하지만 ‘나와 내 남편’밖에 모르던 작정이었던 차윤희는 그 과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사는 맛과 의미도 깨달아가며 한 뼉씩 성장해간다.

드라마 초반 차윤희와 방귀남의 모습은 현대의 많은 여성이 꿈꾸는 매력적이고 산뜻한 당크족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넝쿨당’은 마지막회에서 임신한 차윤희가 임양한 첫째,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의 운동회에서 3인 1조가 돼 서로 다리를 묶고 달리는 장면으로 막을 내렸다.

‘남한테 꽤 안 가지고 내 멋에 깔끔하게 살자’는 차윤희가 인생에서 ‘절대’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어른’이 돼가는 모습은 주말안방극장을 시종 유포하면서 훈훈하게 만



달콩 살아가던 차윤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시집살이 속에서 짜증나고 억울하며 고통스러운 상황과도 맞닥뜨린다.

하지만 ‘나와 내 남편’밖에 모르던 작정이었던 차윤희는 그 과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사는 맛과 의미도 깨달아가며 한 뼉씩 성장해간다.

드라마 초반 차윤희와 방귀남의 모습은 현대의 많은 여성이 꿈꾸는 매력적이고 산뜻한 당크족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넝쿨당’은 마지막회에서 임신한 차윤희가 임양한 첫째,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의 운동회에서 3인 1조가 돼 서로 다리를 묶고 달리는 장면으로 막을 내렸다.

‘남한테 꽤 안 가지고 내 멋에 깔끔하게 살자’는 차윤희가 인생에서 ‘절대’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어른’이 돼가는 모습은 주말안방극장을 시종 유포하면서 훈훈하게 만

들었다. ‘넝쿨당’은 또 박지은이라는 스타 작가의 탄생을 일린 작품이다.

박 작가는 미니시리즈에서 발휘했던 또렷한 캐릭터 플레이를 그대로 살리면서 연속극에 필요한 일상적인 관계설정과 다양한 에피소드 전개에서도 솜씨를 발휘하면서 ‘넝쿨당’이 남녀노소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넝쿨당’은 차윤희와 방귀남을 중심으로 일숙(양정아), 이숙(조윤희), 말숙(오연서) 등 차윤희의 시누이 셋과 천재송(이희준), 민지영(진경), 방장군(곽동연), 엄순애(양희경) 등 생생하게 살아있는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미니시리즈 같은 재미를 줬다.

한편, 후속으로는 이보영, 이상윤 주연의 ‘내 딸 서영이’가 방송된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1일(음 7월 25일 乙亥)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rresponding advice.

Table of EBS program schedules for EBS 플러스1 and EBS 플러스2.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Take the seat next to me' with Korean and English text and a Japanese lesson on '曳尾塗中(에미도중)'. Includes a website link: www.donga.tv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시북풍을 마시다=꿇주리다' with Korean and English text and a Japanese lesson on '与えられた機会を掴む'. Includes a website link: www.littlechina.co.kr